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0년
2021년 2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5년 제 255 호

총기50년 종조탄신대재 종령범어

오늘은 정통밀교의 대광명을 이 땅에 드리우고 즉신성불과 불국정토의 대원을 이루고자 우리 총지종을 창종하신 원정 대성사께서 탄신하신지 1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신일을 맞이하여 총지종의 모든 종도들과 함께 환희와 기쁜 마음으로 불축드리는 바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민安)과 재난불생(災難不生)을 염원하며, 주야로 불보살의 참 말씀인 진언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한 공덕력이며, 불보살의 가지신력(加持神力)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언 가운데 ‘호신진언(護身眞言) 옴치림을 지송(持誦)하면 능히 오역(五逆) 십악(十惡)의 일

원정 대성사님의 구국도생(救國度生) 체 죄업을 소멸하고, 모든 병고재장(病苦)과 중생제도의 대비원, 그리고 선대 열반(罪障) 등 모든 불상사(不祥事)를 없애며,

대비원을 인(因)으로 수행을 연(緣)으로

스승님들을 비롯한 전 승단과 전 종도들의 수행정진으로 관자재보살님의 가지력과 종조님의 가지신력이 오늘의 총지종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진언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원정 대성사의 대비원력(大悲願力)을 인(因)으로 삼고 자신의 수행을 연(緣)으로 삼아 구경에는 정토(淨土)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정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우리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은 종조님께서 열어 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과 정진으로 민족의 염원인 조국평화통일과 밀엄국토의 대원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진언밀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진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과 고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총지종단의 모든 종도들에게 한 건이라도 감염 사례가 없었던 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호국불교 종단답게 국태민안(國泰

진심(專心)으로 한번 염송하면 능히 자기 몸을 수호하고, 두 번을 염송하면 동반자를 수호하며, 세 번을 염송하면 한 집안사람을 수호하고, 네 번을 염송하면 한 성중(城中) 사람을 능히 수호하며, 일곱 번을 염송하면 사천하(四天下) 사람을 능히 수호하는 공덕이 있다’고 『문수근본일자주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언의 위신력은 참으로 지중하고 지대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언밀교의 법을 종도들에게 열어주시고, 비밀의 수법을 펼쳐주신 원정대성사의 대비원력에 깊은 존경과 감은(感恩)의 마음을 바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신력으로 우리 총지종이 길이 융창하고, 모든 종도들의 가정에 무량한 복덕이 증장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총기 50년 1월 29일
총지종 종령 법공 합창

종조 원정 대성사 114주년 탄신대재 봉행

진영 새로 제작, 본산 총지사 종조전 ‘봉안’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 114주년을 맞아 새로 봉안된 진영 전에 스승들이 헌화 중이다.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 114주년을 맞아 종조 진영 봉안 및 탄신대재가 본산 총지사에서 1월 29일 오후 2시 봉행됐다.

탄신대재에 앞서 총기 50년을 맞아 대성사의 창종 정신을 기리고, 밀교중흥을 다짐하고자 새로 제작된 종조 진영 제막식 행사가 거행됐다. ‘불·법·승’ 연호에 맞춰 법공 종령

예하를 비롯 통리원장 인선 정사, 서울경인 신정회 김은숙 회장과 유가족 등이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제막 끈을 당기자 금색 법의와 홍색 가사를 두르고 범모를 쓴 교의좌상 모습의 대성사가 생전의 모습으로 여여하게 나타났다.

법공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진언밀교의 법을 종도들에게 열어주시고, 비밀의 수

법을 펼쳐주신 대성사님의 대비원력에 깊은 존경과 감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진언 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며, 그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원정 대성사의 대비원력을 인으로 삼고 자신의 수행을 연으로 삼아 구경에는 정토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오늘날 되새겨야 할 실천행을 강조했다.

봉행사에서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오늘 새로 모셔진 대성사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과 신심을 점검해보고, 살아있는 것을 자비로 대하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 한다는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기며, 감사와 다짐의 불공을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을 제언했다.

집공 원당 정사, 사회 덕광 정사로 진행된 이날 대재는 대성사의 탄생과 행장을 소개하며 창종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고유문, 종령범어, 통리원장 봉행사, 발원문, 진영 조성 결과 보고와 작가 이철규 화백과 갤러리 세인에 대한 감사패 전달로 마무리 되었다.

〈관련기사 7면〉

제 6, 7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보원 종사 입적

1월 26일 고결식, 왕생성불 서원



불교총지종 제 6대, 7대 중앙종의회 종의원을 역임하며, 한결같은 진언행자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지를 받들고 정진해온 기로스승 보원 종사가 지난 1월 24일 세수 82세, 법랍 40세로 입적했다.

보원 종사는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과정 수료하고 승직에 올라 20여 년간 선림사 주교를 맡아 일평생 교화와 수행에 몸담았으며, 2004년 기로원 진원에 들었다. 포항 장례식장에서 기로원장으로 사흘간 치러진 장례는 장의위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스승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6일 고결식을 마지막으로 보원 종사 영식의 왕생성불과 구경성불을 서원하며 회향했다.

종/조/법/어

부처님께 공양하면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바른 법에 공양하면 지혜가 곧 증장한다

지 면 안 내

2면 총기 50년 신년하례법회

5면 이달의 법문/ 종령 법공 대종사

7면 기획특집/ 원정대성사 진영 봉안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⑨

49일 상반기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오래 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 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종조법설)

일시 _ 총기 50년 2월 19일(금) - 4월 8일(목)

장소 _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 지자체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기 50년 신년하례 법회, 기로진원식 봉행

1월 29일 본산 총지사, 교세 발전 · 종단도약 서원

총기 50년 불교총지종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진원식이 지난 1월 29일 본산 총지사서 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법회에는 종령 법공 예하,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기로 진원을 하는 안성 정사를 비롯 전국 교구장 및 총무 스승과 서울경인교구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교도는 참석하지 않고 조용하고 여법하게 치러졌다.

법공 종령 예하와 스승들은 본존을 향해 법신 비로자나부처님께 죽비에 맞춰 3배를 올리고 신축년 새해 교세 발전과 종단의 재도약을 서원했다. 이어 법공 종령 예하께 법운 융창을 기원하는 승단 스승들의 하례가 진행되었으며, 합장인사로 존경과 예를 표했다.

종령 법공 예하는 법어를 통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국난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잘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격려와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기로 진원하는 안성 정사에 대해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오랜 시간 교화하며 닦은 공덕으로 여생에 좋은 복덕을 받으시리라 믿는다.”고 노고에 대한 치하와 덕담을 전했다.

이어 인선 정사는 “지난 한해는 스승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며, “앞으로도 스승님 개인은 물론 사원이 좀 더 나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한다.”며 인사했다.

신년하례에 이어 진행된 기로진원식에서는 안성 정사에 대해 기로스승 사령장과 기로 가사가 수여됐다. 또 중생교화와 총지종 발전에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안성 정사는 퇴임사에서 “시작이라는 마



총기 50년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진원식에서 안성 정사가 종령 법공 예하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다.

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다. 기로 스승이 되었지만, 현직 교화 스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앞선 선대스승님들과 동료, 후배 스승님들

과 함께 한 시간이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소회와 종단과 스승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전서호 기자

안성 정사 기로 진원

만보사 교화스승으로



안성 정사

안성 정사가 기로 진원했다. 안성 정사는 2003년 승직에 올라 제 9, 11, 12대 중앙종의 회종의원, 사감원장, 대구경북교구장 등을 역임, 근 20년 간 교화와 종단 발전을 위해 수행 정진 해왔다. 지난 1월 1일자로 기로 진원하게 됐으며, 마지막 주교로 있던 만보사 교화 스승으로 임명되었다.

새 주교 임명

흥국사 서강 정사

시범사 혜광 정사

만보사 유가해 전수



서강 정사



혜광 정사



유가해 전수

충청전라교구 흥국사 새 주교에 서강 정사, 서울경인교구 시범사 주교에 혜광 정사가 임명됐다. 통리원은 지난 1월 22일 자 공문을 통해 인사발령을 알렸다. 또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주교에 안성정사에 이어 유가해 전수가 새롭게 맡았다.

내마음의 등불

안성 정사 편

인과는 피할 길 없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허공 위에나 바다 속에나
깊은 산중에 숨어들어도
내가 저지른 악업 재앙은
언제 어디나 피할 곳 없네.

〈법구경, 法句經〉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께서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안성 정사님은 실보사 서령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기로스승 새 가사 가지불공 봉행

1월 20일, 본산 총지사 서원당서



새로 제작된 기로스승 금가사 가지 불공이 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지난 1월 20일 총무부장 원당 정사 집공으로 봉행된 불공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덕광 정사, 교정 부장 승원 정사, 묘심해 전수가 참여한 가운데, 교세발전과 법의수여 원만을 서원하며, 엄숙하면서도 여법하게 진행되었다.

스승 금가사는 앞서 제작되어 지난해 현직 스승들에게 수여되었으며, 올해 들어 금번 기로 스승가사를 완성하여 가지불공을 올리게 됐다. 기존 가사 형태와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장식인 ‘수다라’만 변경이 되었으며, 밀교를 상징하는 6대 4만 3밀을 가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총지종 교의가 영원함을 담아내고 있다.

불교총지종 승직자 후보 모집 공고

생활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

총지종의 스승이 되는 길입니다.

정통 밀교, 생활불교 종단 총지종에서
수행과 교화를 이끌어 갈 승직 후보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_ 2차 2021년 2월 1일~ 2월 28일

대 상 _ 총지 교도 및 신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

문 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02-552-1080~3)

또는 전국 불교총지종 사원(총지신문 11면 사원 일람 참조)



불교총지종

종립 동해중,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대상’



동해중 송인근 교장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가 ‘2020학년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공모’에서 지난해 말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공모 수상으로 국고 3,200만원, 부산교육청 지원금 4,8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

국고, 교육청 등 총 8천만원 예산 지원

다. 이로써 동해중학교는 테블릿PC 180대, 교과서 연구용 노트북 3대, 학습용 노트북 6대 등 모든 학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은 미래형 교육 체제 조성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근 교장은 “코로나19 발생 등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 교

육 체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학생 간 정보화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며, 모든 학생이 온라인 중심의 원격 수업에 소외되지 않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상 수상의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학교는 2021학년도에도 이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의일발(一衣一鉢)

지혜의 눈

정인 양 사건, 교회 안 코로나19는 엇나간 신앙 불법은 탐욕 시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대’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성립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고려 시대 동서대비원은 백성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기 위해 세운 기관으로 원(院)이라는 명칭에서 사찰에서 운영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찰은 보육원의 역할도 했는데,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 시대에도 사찰이 천민이나 고아, 병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처 역할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6.25 전쟁 중에 전쟁고아를 돌본 기관이 교회에서 운영한 시설 이외에도 사찰에서 사적으로 고아들을 돌본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 ‘낳은 정보다 기른 정’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이 같이 떠돌아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의 입양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기에 자기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행위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양부모는 모두 기독교 목회자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성직자의 자녀들이었기에 입양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적 실천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입양한 이후 양육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정인 양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인 양의 양부모가 기독교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는 점과 최

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지만 교회가 ‘물질적 충만’이나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확장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자본주의적 기업과 닮았다는 인상을 쉽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제정일치의 전통 아래 사회적 주도권을 장악하면 국가 권력을 넘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은 독일, 일본, 한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공장을 짓고, 일본은 관공서를 짓고, 한국은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해방 당시 미 군정은 한국을 통치하는데 협조자로 기독교 신자를 우선했고 이승만 정권 이래로 뛰어난 인재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고위관료로 전문직 종사자로 종사하면서 상류층을 형성하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욕망의 총족을 정당화했고 부추겼으며 교회는 이러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하면서 쇼윈도우적 삶을 신자들에게 퍼트렸지요. 정인의 양부모도 입양을 기독교적 사랑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여겼기에 파양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한 TV

에 나와 입양한 가족 모습을 보여주었던 행위는 한 어린 생명을 자신의 종교적 과시욕으로 희생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회나 상주 열방 센터처럼 대면 예배라는 종교적 원칙을 다른 사회 구성원의 건강보다 우선시했던 것도 좁디좁은 자기만의 시야에 갇혀 저지른 반사회적이고 반공동체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자기중심적인 행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걸까요?

불교 신자들도 절에서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신자들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지만 불교는 기독교와 달리 복을 비는 행위를 용인하는 한편으로 ‘비움’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맑은 가난(淸빈, 淸貧)’을 강조합니다. 한 벌의 옷과 하나의 발우(일의일발, 一衣一鉢)의 삶을 꾸려가는 승가는 탐욕의 시대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대입니다. 탐욕은 갈애(渴愛)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용어로 갈급(渴急)이란 말이 있는데, 불교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지요.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의 현재는 과도한 충족으로 인한 낭비나 탐욕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의 교리는 마치 현재의 인류가 저지른 탐욕의 결과를 예견하고 설해진 듯 보입니다. 2,500여 년 전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초화상문도회

〈제17·18·19대 종정 해초대종사-삶의 길 구도의 길〉 발간

해초화상문도회(회장: 재홍, 성주암 주지)는 제 17·18·19대 태고종 종정 및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을 역임한 해초당 덕영 대종사의 법문집 <한국불교태고종 제 17·18·19대 종정 해초대종사-삶의 길 구도의 길>을 발간했다. 해초화상문도회는 지난 1월 26일 태고종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출판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판 과정과 살아생전 대종사에 대해 설명했다.

재홍스님은 “스님의 법문집을 생전에 펴내지 못하고 열반에 드신 후 펴내게 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



렵고 한편으론 감개무량다.”며 발간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회장 능해스님은 “큰스님께서 수행이 항상 올바르고, 서부대 중들에게 모범이 되셨다”며 “조석 예불과 교리공부를 날마다 빠지지 않으셨고, 선암사 방장으로 계시는 12년간 무우전을 하루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고 스님을 회고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 17·18·19대 종정 해초대종사-삶의 길 구도의 길>은 우리불교신문사 부설 도서출판 향지북스에서 양장제본으로 3,000권을 발행했다.

온다. 이 법문집은 스님께서 선암사에 주석하시며 학인들을 제접하시고, 신도들을 위해 설하실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소개하며, “법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 한편으론 죄송스

천태종 제17대 종의회 의장에 무원 스님

지난 1월 20일, 원 구성 후 임시종의회



무원 스님

천태종 제17대 종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다. 의장에는 무원 스님,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

의원이 선출됐다.

제17대 종의회 의원 30명은 지난 1월 20일 도용 종정 예하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제113차 임시종의회를 열어 의장에 무원 스님, 부의장에는 덕해 스님과 황세열 재가의원,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설해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석옥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에는 갈지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제17대 종의회의장 무원 스님은 1979년 대총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93년 6급 법계, 2013년 3급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서울 삼릉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0,000



핀보리수 108염주

₩ 40,000





연명의료 33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법상 정사

“죽음이 어느 때 우리를 찾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육신을 70년, 80년 끌고 달리면 부품 교체가 아니라 폐차 처분할 때가 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보면 막막하게 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희망이냐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는 평소 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담담하게 건너갈 것 같다.

벗어 버린 헌 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다비(荼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병상에서 스님은 병시중을 드는 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지금 내 소원은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하루빨리 다비장 장작으로 올라가는 것이야!”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한 삶을 추구하셨던 스님은 허례허식의 장례절차가 이뤄진다면 죽은 시신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만두라고 소리칠

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고 사리를 찾지 말고 탑, 비도 세우지 말라.”

서로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진흙탕 싸움의 현실 세계에서 스님은 ‘비어있으나 충만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무소유」, 「텅 빈 충만」 등 수많은 스테디셀러를 쓴 스님은 인세 전부를 가난한 이들에게 소리 없이 나눠주고는 그 일을 깨끗이 잊었다. 남을 도왔다는 생각마저도 놓아버린 스님의 무소유는 말 그대로 ‘텅 빈 충만’이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단하게 사는 것’ 스님의 무소유는 말 그대로 ‘텅 빈 충만’

2007년 겨울, 폐암으로 미국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후 법정 스님은 ‘고마움’과 ‘나눔’을 자주 이야기했다. 수행자답게 생사의 문제에 답했던 스님은 2009년 다시 병이 재발하자 주위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실을 찾은 청학 스님이 물었다.

생과 사의 경계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스님은 어떠십니까?”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스님은 종이에 “원래부터 생과 사가 없이”라고 쓰며 생사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줬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테니 내 뜻에 따르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스님의 생전 소원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단하게 사는 것’이었다. 사는 곳이 번거로워지면 ‘버리고 떠나기’를 통해 당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사후 장례절차까지 철저하게 당부하셨다. 입적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하여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 삼일장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화장하라. 평소

소유를 범죄처럼 생각했던 간디에게 깊이 공감한 스님은 관도, 수의도 없이 평소 에 입던 기사 그대로 걸치고 좁은 평상에 누운 채로 다비의 불길에 들어갔다. 그 흔한 꽃도, 만장도, 추도사도, 임종게(臨終揭)도 아무것도 없었다. 스님은 ‘무소유’를 평생 설파했고,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그 길을 쫓았다. 스님이 남긴 무소유, 그 텅 빈 충만은 신선하고 활기 있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언어는 공허하다.”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스님은 법문 마지막을 다음 같이 맺었다.

“내 말은 이쯤에서 끝내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봄에 피어나는 저 찬란한 꽃들에게 들어라.”



심보이야기 16

종자와 아뢰야식과의 관계

법선 정사

정신적인 에너지이자 힘

종자(種子, bja)는 무엇일까. 종자는 식물의 씨앗을 말하며 땅속에 있어도 썩이나 가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식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존

불교의 근본 사상의 하나는 업(業) 사상이며, 이것은 ‘현재의 상태는 과거의 업의 결과이고, 현재의 업은 미래의 상태를 결정한다.’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존재는 행위에 의한 업상속(業相續)으로 지속되는 것이며 업이 결과를 낳기 전인 잠복 상태를 종자라고 한다. 즉 우리들이 지난 일들을 생각해 내기 이전에는 아뢰야식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뢰야식의 종자에 대해서, 종자를 무언가 물질적 또는 사물의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으로는 종자는 아뢰야식 속에 있고, 자기의 과(果)를 만들어내는 공능차별(功能差別)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공능(功能)이란 능력이라는 의미이고, 차별(差別)이란 특

존재는 행위에 의한 업상속(業相續)으로 지속 자기 과(果)를 만들어내는 공능차별(功能差別)

재를 유발하는 가능태가 심층 심리 속에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종자라 부른다. 종자는 처음에는 식물의 열매 속에 있는 종자를 말한 것이지만 이 개념을 불교가 받아들여 나중에는 일체종자식까지 발전하게 된다. 우리들은 흔히 종자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을 연상하기가 쉽다. 하지만 아뢰야식 속의 종자는 사물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인 에너지이며 힘이다.

속에 종자의 상태로 잠복해 있으며, 현재 짓는 업도 아뢰야식의 종자에서 생겨난 것이다.

현재의 업은 미래를 결정

업(業)이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가 미워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일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불교의 찰나생멸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행위는 찰나에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찰나에 사라져 버린 행위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사라진 뒤에도 무언가 다른 형태로 그 영향이 남아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업 사상에서 생겨난 필연적 요청의 결과로 종자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수한·뛰어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자란 ‘자기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힘’이라는 의미이다. 즉 종자란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하나의 힘이지만, 이것은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원자핵에 숨어있는 핵에너지와 같이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잠재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리킨다.

불일불이성(不一不二性)

그렇다면 이 종자와 아뢰야식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뢰야식의 아뢰야는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법이 결과로서 원인으로서 저장되기 때문에 아뢰야식은 창고이고 종자는 그 속에 저장된 저장품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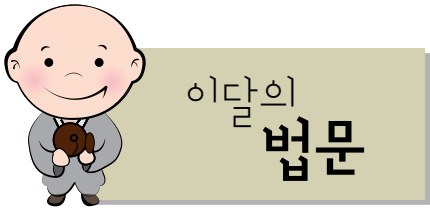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을 체성(體性)이라 하고 종자를 작용(作用)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이 둘을 불일불이성(不一不二性)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공덕은 실천의 열매

종령 법공 대종사



총기 50년 새해불공 회향에 맞춰 각 사원 및 교도들에게 전달되었던 종령 법공 예하의 음성 법문을 녹취록으로 재구성하였다. 편집자 주

옛 말씀에 송죽은 눈 내리는 흑한을 지내봐야 그 푸른 잎의 절개를 알 수 있고, 사람은 흑독한 시련을 겪어 봐야 그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과실도 꼭지가 약하면 약한 바람에도 쉽게 떨어지듯이, 신념이 약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실패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도 크게 보면 앞으로 다칠 예전 같지 않을 지구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존력을 단련시키는 법계의 큰 범문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총지종의 연중 가장 중요하고 큰 불공은 새해불공인데, 금년 새해불공은 최근 코로나의 대확산으로 정상적인 공식 불공이 불가능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심을 굳게 가다듬어서 법계의 시험에 낙제되지 않도록 배전의 용맹심으로 용맹정진하여 더 큰 공덕 성취를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은 복 짓는 일에 앞서 업 닦는 것에 대해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간 보살님들께 업에 대해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무슨 큰 용서 받지 못할 대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과거 전생에 지은 큰 죄업 정도로 인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어떻게 해야 업을 씻어낼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통해 설하신 팔만사천법문이 대부분 어려운 한

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된 업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그냥 ‘업 업(業)’으로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 말씀을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것인데 어려운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란 쉽게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익혀서 굳어져 버린 버릇입니다. 예컨대 밥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여러 가지 행동거지 등 수많은 습관들이 있죠.

습관이 되어서 굳어져 버린 버릇,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은 선업이 되고, 나쁜 습관은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소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찾아보면 고쳐야 할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습관 하나라도 막상 고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길들여 익혀져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을 들이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선업을 짓거나 악업을 씻는 것을 욕심을 내어서 너무 급히 하거나, 너무 크게 단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까운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월초불공 7일 기간이 반복적으로 공을 들이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해서 현교에서 말하는 오계 대신

‘월초 오덜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습관된 것부터 찾아서 실천법으로 고쳐볼 것을 권장했는데, 그것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오덜계로 시작했지만, 그 후 월초불공 육행 실천에 맞추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육덜계’로 보충을 하였습니다. ‘덜’은 이라는 말은 조금 적게, 조금 부족하게의 뜻입니다. 사자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위 ‘육덜계’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덜 자고, 둘째 덜 먹고, 셋째 덜 보고, 넷째 덜 말하고, 다섯째 덜 다니고, 여섯째 덜 쓰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덜 자고’는 인생의 절반은 이불, 즉 침대 속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에 남는 위인들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하루 네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잠은 복을 훔치는 도둑’이라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남보다 앞서가려면 최우선적으로 잠부터 좀 줄여야 합니다. 우선 월초불공 기간만이라도 한두 시간 줄여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덜 먹고’는 풍요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과식병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병의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과식이 원인이며, 소식이 건강장

수에 첫째 요건이라는 것은 이미 의학계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1일 1식을 해오셨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서 월초불공만이라도 1일 2식이나 아니면 1일 총량을 좀 줄여서 감식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덜 보고’는 삶에 있어서 눈을 통한 시선 강탈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소위 바보상자라고 하는 TV에 하루 동안 빼앗기는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현대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스마트폰에 뺨

기는 시간이 또한 심각합니다. 속히 다잡지 않으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노예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월초불공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평소엔 즐겨보는 드라마라든지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한두 시간 줄여보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덜 말하고’는, 옛말에 망언다사라는 말이 있지요. 말이 많으면 실언과 망언이 많아서 구업을 짓게 되지요. 삼업 중에 구업이 가장 많은 것이 오계에도 제시되어있지요. 곧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뜻으로 세 가지. 따라서 구업이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쉽게 지어지는 업인 것을 꼭 명심합시다.

다섯 번째 ‘덜 다니고’는 각자 하루 중에 외출하는 소관이 과연 내 생활에 꼭 필요불가결한 것인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경문』에 보면 자주 나는 새

는 그물에 걸릴 위험이 크고, 발걸음이 가벼운 짐승은 화살 맛을 재앙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모를지기 수행자는 행동이 신중하고 또한 마음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지요. 특히 월초불공 중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을 삼가는 습관을 들여 보기를 바랍니다.

안 익혀온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천으로 습관을 고쳐보되 우선 월초불공 때만이라도 작심하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한 달 하고 또 두 달, 그렇게 해서 하

‘업’은 곧 습관, 좋은 습관은 선업, 나쁜 습관은 악업이 돼 덜 자고, 덜 먹고, 덜 보고, 덜 말하고, 덜 다니고, 덜 쓰자

여섯 번째 ‘덜 쓰자’입니다. 지금은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풍요와 편의에 젖어서 사는 현대인들, 특히 그중에 일회용품의 과다소비로 인한 지구 환경 공해가 심각한 지경에 도달해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인류가 이 잘못된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인류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상의 생명체가 공멸함은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자연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과소비와 일회용품 남용으로 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체대비를 행하는 우리 불자들이 마땅히 앞장서서 실천하고 숭선수범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드린 말씀 잘 알아들으셨겠지요? 알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동

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익히지면 월초불공 때가 아닌 평일에도 점차로 확대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어렵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될 때까지 1년, 아니면 10년,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육덜계는 대략 이런 정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모를지기 수행자는 실천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설득하려 하면 공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공덕은 실천의 열매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꼭 실천으로 공덕의 결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략 핵심만 말씀드렸사오니, 각자가 잘 이해하시고 실천을 통해서 숭선수범으로 중생들을 제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음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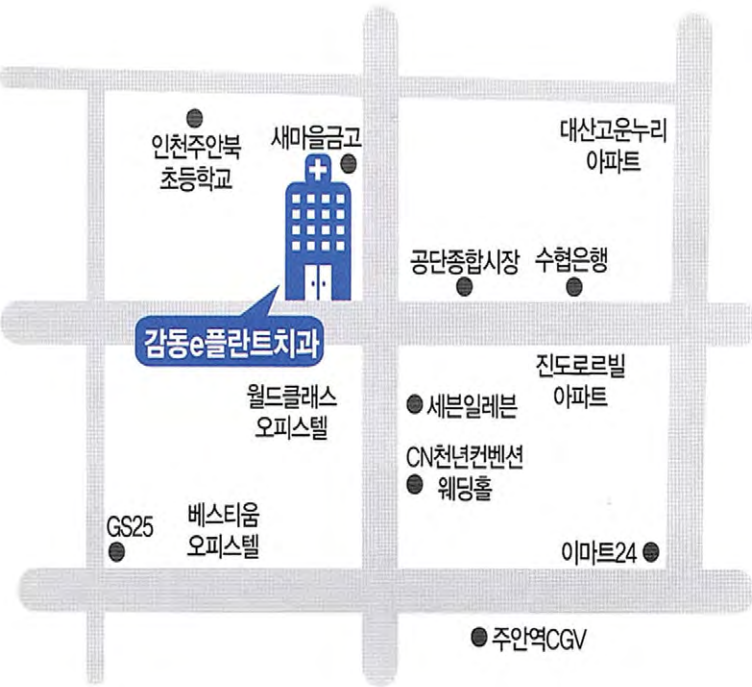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치료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 드립니다!



감동e플란트치과

GAMDONG e PLANT DENTAL CLINIC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4,5층 14-52



임플란트 | 심미보철 | 어르신틀니 | 사랑니발치

임플란트, 보철상담 서두르세요!

예약문의 032)228-2275

도경스님의 수행법문

마음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9>

괴로운 느낌을 가져오는 마음을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들은 크게 욕심, 화, 어리석음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 마음들도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조건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자신의 작용을 하면서 일어난 법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좋지 않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호 중>

화

수행을 하면서 더 깊이 잠재된 화에 대한 이해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활짝 깨어있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서 새로운 이해를 계속해 나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알아차림의 힘이 아주 좋아져서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첫 마음의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경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벽, 나무, 새소리 등에는 마음이 계속 평온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법당으로 올라오는 수행자를 봐도 첫 마음은 화로써 반응하고 나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수행자를 봐도 첫 반응은 화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좌선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수행자를 봐도 첫 마음의 반응은 화였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밝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항상 화로써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다른 인간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인간을 경계하는 마음의 경향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도 더불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아리아 성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가에 대한 이해도 생겼습니다.

욕심

욕심은 화보다도 더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보는 것은 화를 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욕심은 기본적으로 나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 먹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반찬으로 햄 구이가 나왔다고 해 봅시다. 젓가락을 가지고 집으려 갑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맛있게 보이는 것을 집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시킵니다. 젓가락이 출발하기 전에 햄을 보면서 마음은 무엇을 집을지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을 집

으려는 마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거’라고 말하는 마음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미세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의식 표면에서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하지만 의식 깊은 곳에서는 마음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합니다.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곱습니다. 같이 사는 누가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먹자.’ ‘한 젓가락은 괜찮아.’ ‘내일은 휴일이야.’ ‘알아차림 하면서 먹으면 돼.’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라면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을 유혹합니다.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먹기를 유도합니다. 그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라면 맛이 지상 최고의 맛인 것처럼 여깁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한 젓가락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맛이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욕심도 화와 같이 욕심날 상황을 과장합니다. 더 맛있게 생각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소한 나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나로 하여금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체면을 계속해 보십시오. 계속 욕심

의 말을 듣고 욕심의 결과를 알아가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욕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욕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욕심이 하는 말을 안 믿게 됩니다.

이런 욕심보다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나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 나의 믿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욕심입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도서관에 도착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이 도서관은 1시간이 지나면 만석이 되는 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신 근처에 앉으면 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두 번째 사람이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는 도서관을 반 잘라서 저 건너편의 자리입니다. 그는 그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가 사유해서 결론을 내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상황을 바로 해석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관련된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욕심입니다. 자신에게 유리

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면서 판단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서 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내 욕심을 충족시키면 마음이 기뻐하며 들뜩니다. 그 내용이 내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만족스럽고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그 이야기의 유효리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음은 아주 빠르게 마음의 느낌으로 자신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욕심의 마음 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그릇되게 아는 마음입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알아줍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나와 가장 강하게 동일시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보다 훨씬 알기가 힘듭니다. 어느

면 반발합니다.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과 화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바로 화입니다. 화로써 화를 없앨 수 있을까요? 불로써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화로써 화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번뇌도 조건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신의 작용을 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만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일어난 번뇌를 그것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르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켜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긴 이해가 그 번뇌를 줄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면 그 지혜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바꿉니다. 이것이 지혜의 고유한 작용입니다. <다음호에 이어>

욕심’은 ‘화’보다 더 나 자신과 동일시되는 마음 수행, 지혜를 일으킬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수행자가 저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리석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를 내가 가진 자료로 해석해서 그것들을 압니다. 그렇게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관념화된 해석들입니다. 그런 관념적 해석에 그것이 그것일 수 있는 실재하는 성품이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아는 벽이 벽일 수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일 수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컵이 컵일 수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실재하는 성품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들일 뿐이고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관념화된 해석일 뿐입니다.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좋아할 수 있고 그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역을 지키려 하고 영역이 침범당하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

제11대 종령 효강 추대법회

총기 41년(2012년)
2월 14일

장소 : 총지사 서원당
대상 : 전국스승 및 종무원, 교도

상반기 49일 불공 서원사향 추가

총기 41년(2012년)
2월 20일~4월 8일

일시 : 상반기 불공기간
추가 서원사향 : 양대선거 원만 사바하

미얀마 성지순례

총기 43년(2014년)
2월 22일 ~ 27일

종단협 한국불교지도자 미얀마 성지 순례
참석 : 법등 통리원장

설법집
《불공과 설법》
3집 배포

총기 44년(2015년)
2월 23일

원정 대성사님의 ‘화현(化現)’, 금강합장으로 찬탄

철종 어진 그린 기법 ... 비단에 올린 종조의 숨결

지난해 5월부터 7개월여 간의 여정 끝에 종조 원정 대성사의 새로운 진영이 마침내 완료되었다. 총기 50년, 제 114주년 탄신대재를 맞이하여 스승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본산 총지사 종조전에 봉안 불사를 마쳤다. 이에 앞서 1월 27일 작가 이철규 화백은 갤러리 세인에서 특별전을 열어 종조 진영을 공개하였으며, 통리원장 인선 정사를 비롯한 집행부들이 직접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 종조전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편집자 주>

불교총지종 원정대성사(苑淨大聖師) 진영(眞影)



宗祖苑淨大聖師眞影

- 작 품 명 : 원정대성사 진영
- 제작년대 : 2020년
- 진영크기 : 162 × 130.3 cm
- 재 료 : 견본채색(絹本彩色)
- 형 태 : 액자
- 주 관 : 불교총지종
- 기 획 : 갤러리세인
- 제 작 : 이철규(전통 초상화가,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하고 마치 옴마니반메움을 진언하는 대성사의 고매한 눈빛까지 완벽히 구현된 것은 한국 초상화의 철학, 즉 초상화를 그릴 때 피사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재 된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전신사조(傳:전할 전 神:귀신 신寫:배칠 사 照:비출 조)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다.

종조의 눈빛 이금(泥金)을 채색

살아생전의 불심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대성사의 진영을 제작하기 위해서 용안 부분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집중을 하였으며, 특히 정면상을 채택하여 원정대성사의 불요불굴한 의지와 정의감, 고매한 인격을 담아내도록 하였다.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60대 초중반 모습을 그리며 원형묘사(原形描寫)와 현상묘사(現像描寫)를 적절히 병행하면서 전통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품격에 사실성을 높였다. 특히 종조로서 인품과 사상을 담아내기 위해 눈동자 동공 뒷면에 이금(泥金)을 채색하여 종조의 눈빛을 살렸다.

특히 배채법은 채색과 세척을 여러 번 반복하여 반투명한 특성이 잘 나타나는 채색기법으로 은은한 색

감이 장점이다.

배채법, 변치않는 은은한 색감

용안을 채색할 때 앞쪽에 다시 얹게 붉은색이나 황토색 계통의 색을 칠하고 화면 뒤쪽에서 흰색을 칠하면 중간 톤의 색이된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살색 표현과 깊이감을 나타내는 전통 초상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철종 어진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어진의 초상화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색을 입은 진영은 법의의 주름 하나하나가 흘러내리듯 자연스럽고, 법복, 가사표현은 의복에 가미된 주름과 매우 세밀한 문양을 관찰한 후 신중하게 화폭에 옮겨졌다.

완성된 그림은 무표백 순지를 뒷면에 풀칠하여 배접한 뒤, 실제 사진과 비교하여 색감이 상이하거나 색채에 박락이 생긴 부분은 색을 더하여 채색의 완성도를 높였다. 진영의 표제는 한지 위에 정자체와 예서체로 필체 한 후로 진영 위로 부착하였으며, 화가와 서예가의 낙관은 액자 뒷면에 부착하여 마무리했다. 문화재수리 배첩장 이주연 선생이 표구와 액자를 맡아 완성했다.



여여하고 묵연했던 모습 그대로 비단에 그려진 초상화 속 원정 대성사는 전신 교의좌상(全身 交椅坐像·의자에 앉은 전신상) 모습으로 두려움과 의심 없이 여여하고 묵연했던 생전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오셨다.

금색 법의와 홍색 가사를 두르고 법모를 쓴 대성사께서는 고해의 세상에서 고통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길을 전해야겠다던 그때의 서원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계신 듯하다.

한 손에 염주를, 한 손은 금강인을

진영 봉안불사 봉행사



통리원장 인선 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신대재를 앞두고 돌이켜보면, 대성사님 전에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법공 종령 예하께서는 모든 종도가 대성사님의 불심과 큰 뜻을 다시금 기억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진영을 새로 모시라 교시하시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성사님의 새 진영은 걸모습뿐만 아니라 내재 된 정신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비로 대하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

전하는 문이자 교화의 등불이 되는 불교총지종을 여쭙습니다.

그동안 종단 승직자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 불퇴전의 각오로 용맹정진 해왔으며, 어느덧 창종 5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더욱 뜻깊은 대성사님의 탄신일을 봉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사께서 세상을 떠나심에 더 만나 볼 수 없음은 슬픈 일이거나, 우리는 곳곳에서 그분이 남긴 가르침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불교총지종은 이 땅에 끊어진 밀교 종단의 맥을 다시 잇는 한국불교사의 한 획이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한국 전통 밀교 종단으로서 법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탄신재를 맞이하여 새로 모셔진 대성사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수행과 신심을 점검해보고, 살아있는 것을 자비로 대하고 지혜를 향해 나아가 한다는 생전 가르침을 가슴에 되새기며, 감사와 다짐의 불공을 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조탄신대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와 자비원력이 총만하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그리운 스승님이시어, 저희들을 부디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지심으로 발원하옵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50년 1월 29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합장

불교총지종 그때 그 시절 II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신임임원진
통리원 방문
총기 44년(2015년)
2월 27일

통리원장 인선 정사
이·취임식 봉행
총기 45년(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총지사 서원당
참석대상 : 승단, 서울·경인교구 사부대중

총지종보
통신원 워크숍
총기 46년(2017년)
2월 2일 ~ 2월 3일

장소 : 변산반도 대명리조트

통리원 집행부
인사발령 사령장 수여
총기 48년(2019년)
2월 18일

총무부장 원당, 재무부장 덕광
교정부장 승원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란 무엇인가?_밀교의 특징<2>

예배와 공양에 관한 의례 존재
체험과 직결되는 밀교는 유가관법의 기본적인 경향에 있어서 고대인도 이래의 전통적인 요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밀교에서 특이한 것은 유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예불이나 공양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적 의례나 작법이 수반되어 있어, 그것들에 대해 엄격한 규정, 즉 의례(儀禮)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의 엄격한 제식(祭式)의 규칙서 즉 의례(vidhi)가 제작되었고, 불교가 그것을 채용하여 불상의 예배와 공양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의례의 제작은 2세기에서 3세기에 이른다.

4세기 초 통일국가를 창설한 굽타 왕조가 브라만교의 부흥에 힘쓴 결과, 불교 경전 속에서도 브라만교의 의례나 신들이 적극적으로 섭취되

기에 이른다. 이 무렵에는 브라만교의 의례나 힌두신이 불교의 치장을 하고 나타나는 밀교경전이 잇달아 제작된다. 5세기가 되었을 때, 인계(印契)와 주(呪)가 결합된 수법(修法)이 불교에 도입되는데, 이러한 수법의 목적은 재재초복(除災招福)을 주로 하는 것으로, 행자의 깨달음과 관련된 대우주와의 합일에 대한 설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수법의 목적이 현세이익을 벗어나 성불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인도의 중기 밀교, 즉 7세기에 성립된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이후이다.

인도 중기, 밀교 경전의 성립

이들 인도 중기의 밀교 경전은 신구의(身口意) 삼밀(三密)의 유가(瑜伽)를 기반으로 한 성불(成佛)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계(印契)·

신(身), 진언(眞言)·구(口), 삼마지(三摩地)·의(意)의 삼밀융합(三密融合)의 유가를 수행함으로써 행자(소우주)와 대일여래(대우주)와의 합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세이익의 수법을 중심으로 설파하는 초기 밀교를 일반적으로 잡밀(雜密)이라 칭하고, 『대일경』 『금강정경』 등의 중기 밀교를 순밀(純密)이라 부르고 있다.

초기 밀교의 경전은 불설이라 하나 불교 교리와의 관계는 희박하다. 반면 중기밀교의 경전에는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대표적 사상이 중횡으로 박혀 유가행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고 있다. 『대일경』 『금강정경』 등 인도 중기의 밀교 경전의 성립으로 밀교는 고대 인도의 주법(呪法)과 불교 교리의 총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

다. 또 한편으로 유가(瑜伽), 선정(禪定), 수습(修習)과 같은 실천을 그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던 불교 경전이, 종교 체험과 직결되는 방법을 비로소 피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승불교 교의와 사상의 계승

밀교의 사상적 특징 중 하나로 포섭(包攝)과 순화(純化)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밀교는 무엇보다 종교체험을 중시하고 거기서 출발한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밀교에 사상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밀교 경전 속에는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불교의 주요 교의와 사상이 계승되고, 또 아리아 기원, 비아리아 기원을 불문하고 고대 인도의 문화가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밀교를 서구

에서는 통상 탄트라 불교라고 부른다. 탄트리즘(tantrism)에는 인도 고래의 전통적인 제식(祭式), 찬가(讚歌), 의례(儀禮), 고행(苦行), 유가(瑜伽) 등의 종교적 행위에서부터 일상생활상의 습관, 풍습, 법률, 전승, 나아가 의학, 천문학, 주술 등 대부분의 종교적 내지 일상적인 행위, 나아가 금욕주의에서부터 쾌락주의, 유심론에서부터 유물론까지 폭넓은 사상을 포함한다.

즉 이는 힌두 사회의 종교, 생활, 문화 일체가 포함된 명칭이다. 밀교는 이러한 탄트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이므로 그 경전 속에는 고대 인도의 모든 문화가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그중에는 백과사전쯤으로 착각할 만큼 다양한 경전도 있다.

종교와 과학의 양립을 허용

브라만교에 기본적인 형태를 둔 종교의례에서 힌두 기원의 신의 혼입(混入), 수학, 지리학, 약학, 의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영역까지 이르는 밀교경전의 레퍼토리는 매우

넓다. 진언종의 상승(相承)계보 위에서 8조(八祖)의 한명으로 꼽히는 중국 출생 일행 선사는 천태, 선, 도교 등에 통한 학승일 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에도 뛰어나 태연력(太衍曆)이라는 정밀달력을 제작한 뛰어난 천문학자였다. 밀교 속에는 이러한 종교와 과학이 양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밀교경전이 갖는 다양성은 밀교만의 특색이라기보다, 인도사상 내지 동양사상이 지닌 특색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각양각색의 문화를 포섭하고 혼합하여 거대한 하나의 분류(奔流)로 변해버리는 동양문화의 스케일의 크기는, 순수성이라든가 단일성을 따지는 서양의 근대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적지 않다. 과거 밀교를 비롯해 힌두교 등이 지닌 복합성, 중층성에 대한 근대인들의 평가는 시큰동했다. 지금 이들 동양문화에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근대문명의 좌절과 반드시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

정성준 교수의
밀교 인물史

인도 밀교의 마지막 전등, 와나라뜨나

8세기 티베트의 티송데첸(742-797) 왕에 의해 인도불교가 정통성을 인정받은 후 나란다사의 승원제도와 역사, 문헌, 사자상승의 범통은 티베트에 전해졌다.

12, 13세기 티베트는 인도의 스승들과 활발한 교류에 의해 이론, 수행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7세기 인도에서 시작된 방대한 불교 교학과 수행체계의 적집화는 12세기 티베트에 이르러 비로소 5학(계율, 구사, 반야, 중관, 인명)과 현밀검수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에 뜻을 두고 출가한 후 누구나 삼장의 바다에

빠져 헤매게 마련이고 오로지 수재만이 삼장을 섭렵해 요의에 통달하게 된다. 인도스승들의 자비에 의해 진언문과 인명학으로 시작된 간결화의 노력은 5백여 년의 시간이 걸려 도차제와 밀교수행으로 간소화되었으니 그 공덕과 이익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와나라뜨나는 지공의 손자뻘 되는 승려이다. 왕자 신분으로 사다가라에 태어났고 부왕은 우다야끼르피, 왕비는 꾸마리라고 하였다.

와나라뜨나는 8세 마하짜이뜨야사원에 출가했는데 불전문학의 대가와 동명인 붓다고사와 수자파라뜨나를

계사로 수계하고 두 스승으로부터 일찍이 밀교를 배웠다. 와나라뜨나는 15세 전후해 중요한 대부분의 밀교를 익혔고 이후 「입보리행론」과 「유가사지론」의 문헌을 정밀하게 공부했다. 이후 스리랑카에 가서는 달마끼르피로부터 계율을 배웠으니 밀교를 먼저 배운 후 현교, 계율을 차례로 익히고 당대의 스승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와나라뜨나는 깊은 선정에서 이미 입적한 사와리빠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힌두의 대문법학자인 하리하라와 교류하였다. 와나라뜨나가 우루와 사사원에 머물 때 관세음보살 석상으

로부터 티베트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다. 티베트에 가는 중 네팔에 머물렀고 역경사 실라사가라로부터는 보살계를 받고 무려 5년이 지난 후 비로소 1426년 티베트에 당도하였다. 와나라뜨나는 쯡가빠의 후원자와 팍모독빠의 세력에 의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나 역경과 통역의 인연을 만나지 못해 다시 네팔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네팔에서 밀교에 대한 중요한 관정들을 받고 그 전승을 새롭게 하였고, 이후 그의 명성을 비로소 알게 된 랍뎀공산팍빠와 라왕겔첸의 초청으로 다시 티베트에 들어가 비로소 통역관인 잠뎀예세를 만났다. 그러나 티베트에서 팍모독빠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차끼라상와라판뜨라에 대한 중요한 전승을 받고 다시 네팔로 돌아와 여기서 중요한 저술을 완성했다.

이윽고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와나라뜨나는 비로소 수도에 초청되어 통역과 역경사들과 함께 자신의 학문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말년에는 네팔로 돌아와 많은 제자들에게 밀교를 전수하고 1468년 세수 85의 나이로 입적했다. 와나라뜨나는 티베트대장경 논소부에 23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밀교와 관련된 것이었다.

와나라뜨나는 현밀을 교차하며 남긴 수학과 수행은 티베트의 풍운과 함께 뜻을 다 펴지 못한 것은 중국의 진제삼장을 떠올리게 하지만, 아사리가 활동하던 시기는 쯡카빠에 의해 겔룩빠의 토대가 다져지던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기여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다.

쯡카빠의 제자 가운데 겐뎀뉘이 초대 달라이라마가 되어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여 오늘에 이르렀

다. 달라이라마 14세는 인도불교의 삼장과 나란다사의 존재로 인해 티베트불교가 존재하고, 인류 최고의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언하였다. 예전 인도에 유학할 때 인도불교이 멸망 이유를 두고 힌두학자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인도불교가 티베트에서 다시 나란다의 승단과 전통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생명력과 가치를 여전히 보존했기 때문이다.

만약 불교가 고유의 정신을 잃었다면 지금의 티베트는 외도와 무속이 뒤섞인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무슬림에 의한 나란다사의 방화와 대학살 이후 인도교단은 왕실에 의한 지원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에도 나란다사는 여전히 존재하여 나란다사 출신의 지공(指空, ~ 1363)화상도 고려를 방문하여 밀교에 능한 스승으로서 오늘날 그의 부도가 회암사에 전한다.

총기 49년 지난 한 해 동안 총지신문 후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대일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주)브릭 이지연	강승민	강승훈	강점이	강춘란	강혜란	공덕성	곽방은	관 득	구미자	권민경	김갑선
김강미자	김경남	김광혁	김동운	김미혜	김민주	김사룡	김성민	김여진	김연수	김연정	김위식
김윤수	김재영	김정환	김정희	김진화	김평석	나석원	남영애	노점호	덕 광	도 우	록 경
묘심해	묘원화	문주하	밀공정	박귀임	박성호	박정은	박정희	박현정	반야심	반야화	법계월
법 공	법 등	법 상	법 선	법수연	법수원	법 우	법지원	변순개	보 명심	사홍화	상지화
서남교	선도원	선헌종	손석현	송인근	수증원	승 원	승효제	시각화	시 법	신말심	신명준
신성희	신용도	신운산	신익수	신현태	신효규	안병지	안주화	안한수	연등원	오순자	우 인
원 당	유승우	유승태	이도현	이미자	이민선	이상욱	이상채	이서현	이성미	이수형	이순옥
이유정	이지희	이진승	이학열	이현직	이형근	이희우	인 선	인지심	자성각	장복순	장진식
전명환	전재활	정난채	정동숙	정미옥	정순득	정원심	정정희	정혜정	지 정	지 홍	지희심
진금선	진일심	총지화	최상관	최영미	최영아	최옥순	최유정	최자영	최해선	탁상달	하명순
하재희	한영란	해 정	혜 봉	홍수민	화 령	황규석	황성녀	효 강	(가나다순)		



불교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제 51회 졸업식 개최

3학년 5개 반 145명, 마지막 교가 제창



종립 동해중학교 제 51회 졸업식이 코로나로 인해 방송실에서 비대면 진행되었다.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송인근) 제 51회 졸업식이 지난 1월 12일 동해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비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졸업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3학년 각 5개 반에

교실별로 담임교사의 지도로 방송을 통해 이뤄졌다.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동해중학교 송인근 교장 등 교사와 학생 대표 및 수상

학생들만 참여한 가운데 방송실에서 열린 졸업식은 개회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졸업생 145명을 대표하여 학생회장 홍진솔 군이 송인근 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다.

송인근 교장은 축사에서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어렵고 힘든 길을 지나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자신만의 목표를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졸업을 축하하는 교사들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제간의 정을 확인하며, 아쉬운 이별의 시간을 달랬다. 졸업생 수상자와 장학생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상 홍진솔 군 △학교장상 이원형, 김민서, 김도영 군 △총지중 장학금 이원형, 최은성, 김민수, 김정현, 노경민 군

하현주 박사의
마음 발 가꾸는 이야기
자비정원(慈悲正願)⑧

자리(自利)와 이타(利他) 무엇이 먼저인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철학자인 양주는 위아(爲我)설을 주장해 당대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당시 난립했던 제자백가들은 저마다 천하를 구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았다. 이를 보며 양주는 천하를 주더라도 정강이의 털 한 올과 바꾸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을 천하의 제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며 살아가라는 사상을 펼친다.

한편, 묵자는 하늘(天)이 만민을 겸애(兼愛)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도 서로 겸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 위하는 사리사욕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리와 이타 중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답은 현대 심리학으로도 이어진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라는 상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미국의 심리학자 네프(Neff)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자기자비(self-compassion)는 남방 불교에서 자애관을 닦을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애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에 착안한 심리학적 구성개념이다.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 인간의 보편성, 마음 챙김의 3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나약하고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 공감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타인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수용적인 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창안된 이래, 자기자비는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 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자기자비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수치심, 자기 비난 등의 부정적 상태를 감소시키고, 행복, 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상태를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치료적 효과들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자기자비는 자기중심성에 의해 왜곡된 자기비난, 즉 자신만 부족절하고 부족하다는 평가로부터 벗어나, 타인들도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으며, 인간은 보편적으로 취약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 자비가 긍정 정서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타인을 향한 자비로도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자비에 있어서 자리와 이타는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자비는 불교의 무아(無我)설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관점에서, 자리와 이타는 둘이 아니며, 오히려 자타평등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티데바는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에서 자타의 구별 없이 자비심에 의해 모든 유정을 구제하는 것이 보리심을 추구하는 이유라고 설하며, 그 근거를 무아에 둔다. 고통의 주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입장에서 자타의 고통이 구별되지만, 승의 입장에서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다.

집에 불이 났는데 내 방의 불만 끄는 것이 이기주의라면, 이타주의는 제 몸 타는 줄도 모르고 다른 방의 불부터 끄는 것과 같다. 자리가 타인 먼저 자기 몸을 불로부터 지키되, 자타 구분 없이 불을 꺼야 나와 남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이치와 같지 않을까?

번뇌의 불은 내 한 몸 지키면 당장은 안전한 것 같아도, 금방 옆에 있던 불길에 덮쳐오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내 마음의 불을 먼저 끄되,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길에 꺼지도록 함께 지켜봐 주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내 고통에 접촉했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보인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의 경험 속에서 자타의 구분이 융해되는 순간이 일어난다.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으나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들이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며 함께 위로받는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과거 혹은 현재의 자신을 대입하고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누구의 고통인지 모를 고통이라는 현상을 함께 위무하고 치유해 나가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내 고통에만 함몰되어 끔찍하고 괴로운 때보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이리저리 피하려고 할 때보다, 함께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전보다 덜하다는 것이다.

임춘이 와도 아직은 시린 2월에는 봄날 새순을 피워내기를 고대하는 겨울나무의 심정으로 이제 막 발아할 자비의 씨앗을 싹틔워보면 어떨까?

나석원 석관실버복지센터장 성북구의회 의장 표창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인선 정사) 산하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나석원 센터장이 지난 1월 14일 성북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장실 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성북구의회 김일영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나석원 센터장은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교

육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회원 관리 전산화, 세대공감을 위한 공간개방사업 기획 등 센터 운영을 하며 얻은 성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 수여에 이어 나석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재단의 이념인 자리가 타 정신을 잘 실천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석관실버복지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나석원 센터장은 복지시설



운영의 공을 인정받아 2014년 서울특별시 장, 2019년 국회의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전서호 기자

재단산하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강남구립연합회 회장 당선



하재희 원장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인선 정사) 산하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이

2021년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이하: 강구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월 21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줌(zoom)을 통한 강구연 총회를 거쳐 SNS 비밀 투표로 시행됐다. 강구연 59명의 유권자 중 54명이 투표하여, 34표를

얻어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년이다.

하 원장은 “총지중 소속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강구연의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전해왔다.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2월 21일 ~ 1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김위식	1/6	60,000
건화사	법상	1/20	20,000
관성사	김동운	12/21	30,000
	황성녀	1/4	10,000
	인선	1/20	20,000
관음사	김정희	12/30	10,000
기로스승	해정	12/24	10,000
	지희심	1/15	300,000
	법공	1/20	10,000
	공덕성	1/20	10,000
	상지화	1/20	10,000
	수중원	1/20	10,000
	밀공정	1/20	10,000
	총지화	1/20	10,000
	법수원	1/20	10,000
	선도원	1/20	10,000
	법지원	1/20	10,000
	일성혜	1/20	10,000
	사홍화	1/20	10,000
	안주화	1/20	10,000
	진일심	1/20	10,000
단음사	시각화	1/20	10,000
	최상관	1/20	10,000
	연등원	1/20	10,000
	전명환	1/14	10,000
	전재활	1/14	10,000
단향사	지홍	1/18	20,000

동해사	송인근	12/21	10,000
	김진화	1/12	10,000
	송인근	1/20	10,000
만보사	법선	1/20	10,000
	최옥순	1/11	10,000
	김민주	12/24	50,000
미미위 세곡키움 센터	선해종	12/24	10,000
	권민경	12/28	10,000
	최주락	12/22	10,000
밀인사	록경	12/22	10,000
	법수연	12/22	10,000
	정정희	12/30	5,000
법천사	반아심	12/31	10,000
법황사	유승태	1/11	10,000
	김미혜	1/11	10,000
	송원	1/20	10,000
벽룡사	묘원화	1/20	10,000
벚고을어 린이집	이민선	1/15	50,000
	김갑선	12/21	10,000
	하명순	12/28	10,000
사원명 무기명	정미옥	12/31	525,900
	남영애	1/4	30,000
	장태관	1/5	50,000
	이진승	1/7	10,000
	박필남	1/15	10,000
단향사	백귀희	1/15	10,000

사원명 무기명	김갑선	1/19	10,000
	김여진	12/28	10,000
	김윤수	12/28	10,000
	나석원	12/28	100,000
수인사	정순득	12/28	10,000
실보사	이순옥	12/22	10,000
	박성호	12/22	10,000
	무명씨	12/31	20,000
	박현정	1/4	10,000
	이순옥	1/15	10,000
	박성호	1/15	10,000
실지사	정해정	1/2	10,000
	연화법	1/2	10,000
	유승우	1/14	10,000
	이도현	1/14	10,000
	이서현	1/14	10,000
	덕광	1/20	10,000
	보현	1/20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전금선	12/24	5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12/28	50,000
운천사	반아화	1/2	10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12/28	50,000
	구미자	12/31	10,000
	최지영	1/7	10,000
	이현직	1/11	10,000

자석사	도우	1/12	10,000
	지현	1/12	10,000
점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11	50,000
정각사	노점호	12/28	15,000
	무명씨	1/17	10,000
진주 호국사	무명씨	1/11	40,000
초록어린이 이집	이지희	12/28	50,000
	강혜란	12/28	10,000
총지사	최해선	12/30	10,000
	김정환	1/6	10,000
	최영아	1/15	10,000
	원당	1/15	10,000
	묘심해	1/15	10,000
	신성희	1/16	10,000
	신명준	1/16	10,000
	신현태	1/16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홍수민	1/18	10,000
	최유정	12/26	50,000
화음사	무명씨	12/24	10,000
	무명씨	12/26	10,000
	무명씨	1/5	10,000
	무명씨	1/10	10,000
	최영미	1/11	50,000
힐스어린이 이집	강승민	1/11	5,000
	곽방은	1/11	50,000

생명살림
경전이야기③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본생경〉에서 얻은 교훈 ②

연기적 세계관으로 생태위기 ‘극복’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숲 속의 목신(木神)으로 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숲의 가장 큰 나무에 어떤 다른 목신이 살고 있었다. 그 숲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농사를 짓는다거나 나무를 벨 수 없었고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사자와 호랑이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먹다 남은 것을 여기저기 버려 두었다. 숲 속은 더러운 송장 냄새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저쪽 목신은 미련하여 아무 이치를 몰랐다. 어느 날 그는 보살을 보고 “여보게 이 사자와 호랑이 때문에 우리 숲은 더러운 송장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저것을 쫓아버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살은 “여보게, 저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이 나무는 보호되는 것이네. 저들의 발길 이 끊어지면 인간들이 와서 이 숲을 모두 베어내고 마을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것이네.”

보살은 이렇게 말해 주었으나 그 미련한 목신은 알아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은 무서운 형상을 나타내어 사자와 호랑이를 쫓아버렸다. 그들이 다른 숲으로 간 것을 알고 사람들은 와서 그 숲을 베기 시작했다. <본생경 중에서>

지구의 생태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태계의 이런 상호연관을 보지 못하고 자기편리와 이윤 추구를 위해 함부로 개발을 일삼았다.

그 결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조화로운 것은 깨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

이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다

다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의 본질이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본생담에 나오는 어리석은 목신의 이야기는 오늘 날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이다. 미국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14마리의 늑대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14년부터 엘크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미국의회는 늑대, 프레리도그 등 농업과 가축에 해로운 동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1926년까지 136마리의 늑대가 사냥됐으며, 늑대는 엘로스톤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73년 멸종위기 동물법이 통과되었을 때 늑대는 멸종 위기종으로 등재된 첫 번째 포유류 중의 하나였다.

더 큰 문제는 늑대가 사라진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땅과 나무 그리고 강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복잡한 생태계 그물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엘크였다. 늑대가 없어지자 엘크의 개체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다. 어린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자라질 못했다. 풀숲이 사라진 강둑은 무너졌고 물고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큰 나무가 줄어들자 비버는 댐을 만들 나무가 없었다. 사람들은 엘크의 개체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시 엘크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다시 늑대를 들여오기로 했다.

1995년부터 96년까지 31마리의 늑대를 풀었다. 늑대가 돌아오자 엘크 수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무들은 크고 무성해졌고, 새가 날아들었으며 비버는 둑을 만들었다. 비버가 강에 둑을 만들자 수달, 오리, 어류들의 서식지가 되었고 늑대가 코요태를 사냥하기 시

작하면서는 토끼, 쥐가 늘어났고 이는 여우, 족제비, 오소리, 독수리들을 불러왔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강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강의 굽이는 줄어들었고 침식도 줄어들었다 급류지역이 늘어났고 웅덩이도 많아졌다. 이는 매우 훌륭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70년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해 내지 못한 생태계의 안정이 늑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연은 자연으로 보호되어야

엘로스톤은 인간의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와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준 사례로 유명하다. 산업혁명이후 인간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존재하는 하위체계로서 이용할 대상이자 과학적으로 통제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오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다. 지구의 안정성은 훼손되었고 복원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제 과학자들은 말한다.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작년 말 드디어 2050년 탄소제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한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거나 산악열차를 놓는다는 개발 논의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유기적 세계관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방법으로 제시한 연기적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탐진치의 구조화된 세계인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유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불자들의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나는 민들레

동해중 2학년 우원호 군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벗어나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두 다리를 밟고 일어나
나는 몸을 일으켜 세운다.

추운 겨울의 외면에 나는
몸을 계속 움츠리고
매섭게 몰아치는 폭풍우의 잔소리와
자동차 매연의 조여오는 압박에
나는 숨이 막히고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쓰러지지만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시련은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만으론 버틸 수 없기에
아주 조금의 따뜻한 햇볕의 시선과
아주 약간의 포근한 흙의 품이
나의 내면을 키우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운다.

흑독한 세상의 따뜻한 시련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나의 정신을 강하게 키우고

아주 조금의 햇빛이 주는 관심은
내 마음을 더 풍요롭게 가꾸고
내면의 성장에 거름이 되어준다.

고통, 시련 그리고 조금의 관심이
한데 어우러져 내면을 키우고
나는 한발씩 내딛고 천천히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운다.



불교서적 월간베스트(1/1~31)

제공 : 도서출판 운주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3	보리도차체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벤첸라마 룽상에	운주사
4	굿바이 분노 : 보리심 완성을 위한 실천 수행법	원빈스님	이층버스
5	중론 : 산스크리트 계승의 문법 해설을 겸한 (개정본)	김성철	오타쿠
6	나는 관찰은 사람입니다 : 내려놓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법	법륜스님	정토
7	넓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조용헌의 영지 순례 : 기운과 풍광 인생 순례자를 달래주는 영지 23곳	조용헌	불광출판사
9	도해 쫓카빠 대사 람림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 (보리도차체의 성자)	자써 / 석해능	부다가야
10	우다나 : 우러나온말씀 = 자설경 (배알리경장)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수계사 교도

S-OIL 현곡주유소



착한가격! 좋은품질! 정품정량!

대표 최병철

주소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1242-58

전화 054-745-5804 / 054-745-3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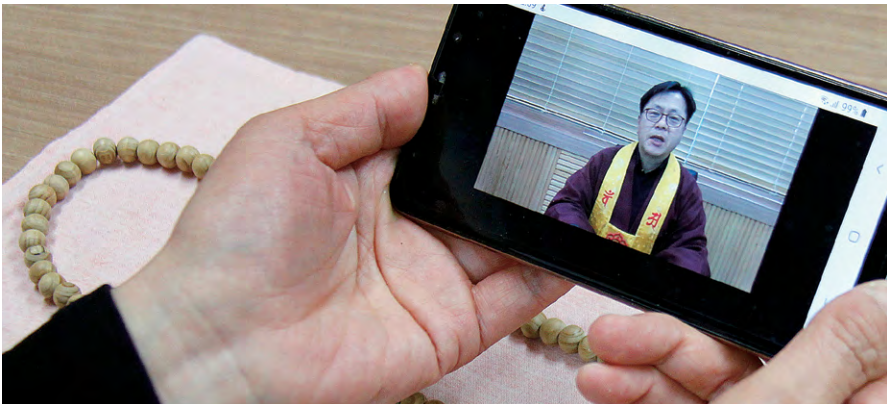
핸드폰 010-2877-6137

총기 50년 새해 불공 전국 회향 종령 예하, ‘수행자는 실천으로 말해야한다’



본산 총지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스승과 시무들이 서원당에서 불공 중이다.

신축년을 맞아 전국 사원에서 진행된 총기 50년 새해불공이 지난 1월 4일 입제를 시작으로 1월 10일 회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2.5단계 예방수칙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에 따라 사원에서는 주교와 현직 스승만이 참석하고, 교도들은 가정 불공을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부산 정각사 교도들은 주교 법경 정사 법문 영상으로 새해 불공에 동참했다.

대 확산으로 정상적인 공식 불공이 불가함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신심을 굳게 가다듬어서 법계의 시험에 낙제되지 않도록 웅맹정진하여 더 큰 공덕 성취를 이루어내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격려하며, “모름지기 수행자는 실천으로 말해야한다.”며, “공

온라인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 ‘동상’ 동해중 김재만, 윤중석, 이예서 교사

동해중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0 수상했다. 온라인 교과서 아이디어 공모전’ ‘박씨전」을 통해 살펴보는 호란 중학교 부문에 정보 김재만 교사, 역사 윤중석 교사, 국어 이예서 교사가 동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을

로그를 활용하여 e-book 형식으로 만들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과서 체제 개편의 시시점 도출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지/문/답 ⑤

통리원 교정부장
승원 정사

“총지종 교의의 상징이자 종지를 표시하는 동시에 교기와 건물, 그리고 각종 마크와 의복의 뱀지로 사용될 종단의 상징물을 고안하니, 이것이 육합상이다.” 종조 원정대성사께서는 창종 후 종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육합상을 직접 고안(육합상의 문양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하고, 이를 통해 내실을 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종단을 알리며, 밀교종단의 틀을 만들어 나아갔다.

육합상은 중앙에 둥근 원을 하고, 원으로부터 6개의 가시광선이 있고, 그 바깥으로 6개의 연꽃잎을 한 모양이다. 원상과 광명방사선은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상징이며, 외곽의 6엽은 불교의 교화 연꽃을 표시하고,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을 나타낸다. 비로자나불을 『대일경소』에서는 태양에 비유하여 ‘대일여래’라 하였다.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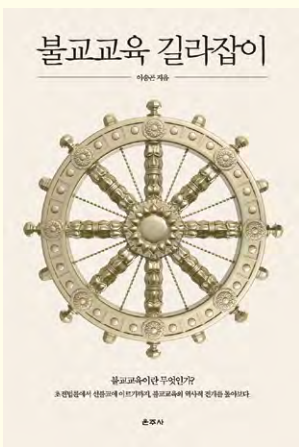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상징 ‘육합상’



- 중앙은 원상
- 원상 바깥에는 여섯 개의 광명방사선
- 외곽에는 여섯 개의 연꽃잎

은 태양을 표현한 것이며 태양은 곧 비로자나불을 상징한다. 즉 육합상의 중앙에 총지종의 주 존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또 총지종의 본존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도 육합상에 모셔져 있다. 또 6엽은 종단의 실천수행법인 육바라밀을 의미하고 있다. 불교총지종의 이론과 실제, 교상과 사상이 바로 이 육합상에 녹아 있는 것이다.

불교교육 길라잡이



초전법륜부터 선불교까지
불교교육의
역사적 전개를 돌아보다

저자 이승곤
판형 152×224(신국판) / 268쪽
정가 16,000원
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

“불교교육학은 불교학인가, 교육학인가?”이 책은 불교교육의 정의와 특성을 비롯하여 불교의 교육적 이론체계, 시대별로 나타나는 불교교육 과정에서의 인간 형성의 모습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서양철학 중심의 현대 교육학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불교학을 보편성으로, 교육학을 특수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불교교육학의 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불교는 마음을 닦음으로써 인격에 변화를 주

며 종국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불교교육이란 무엇인지, 불교의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은 어떠한지, 불교교육이 왜 필요한지 등 불교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전개된 불교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하여 전체 흐름과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교학에 나타나 있는 불교교육의 인간 형성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저자인 이승곤 작가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불교방송 PD로 재직하고 있다.

총 지 스 케 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작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제중주,에 의한 진인 '옴출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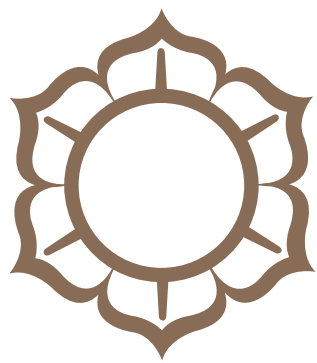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월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법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호사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율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삼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정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공모 사료

- 총지종 역사적 가치가 담긴 기록물
- 총지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장품
- 문서, 사진, 동영상, 책자 등

공모 방법

- 접수 및 문의: 종보실
- Tel: 02-552-1080
- 보낼 곳: 우편 및 이메일
- E-mail: news@chongji.or.kr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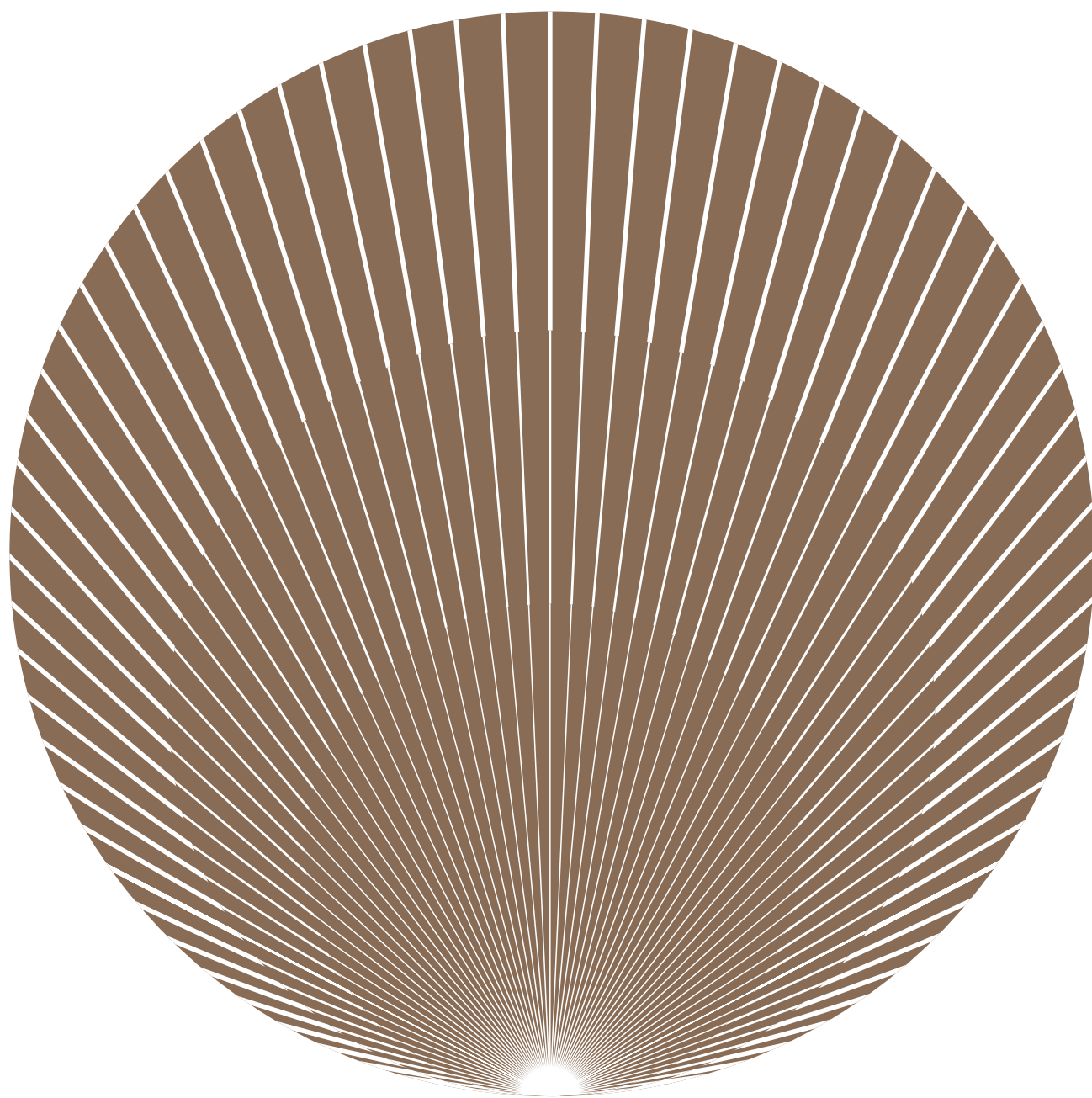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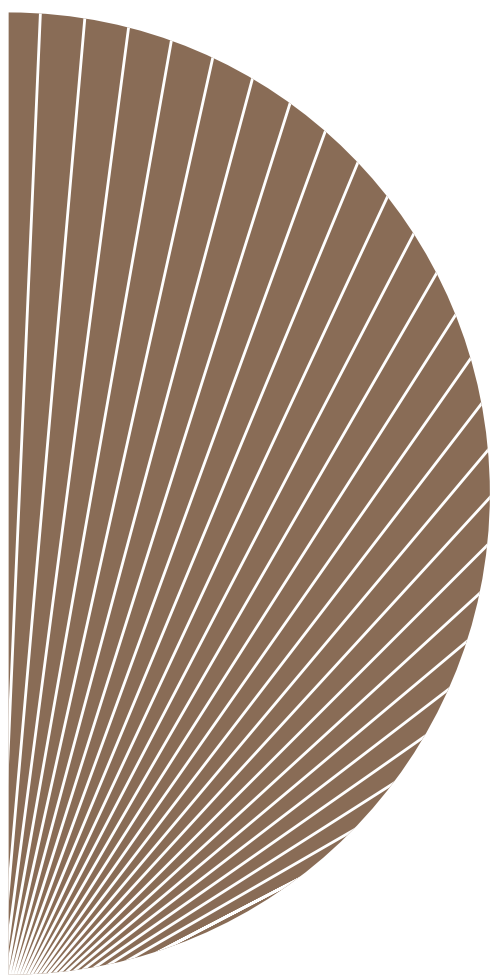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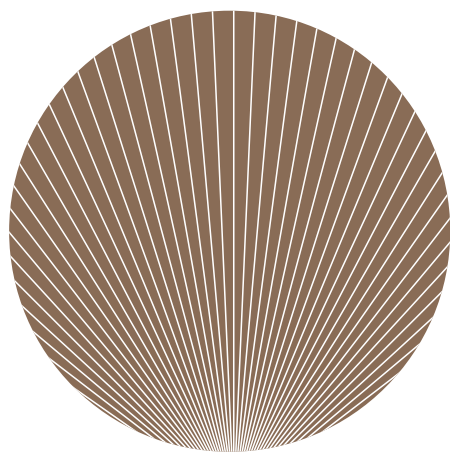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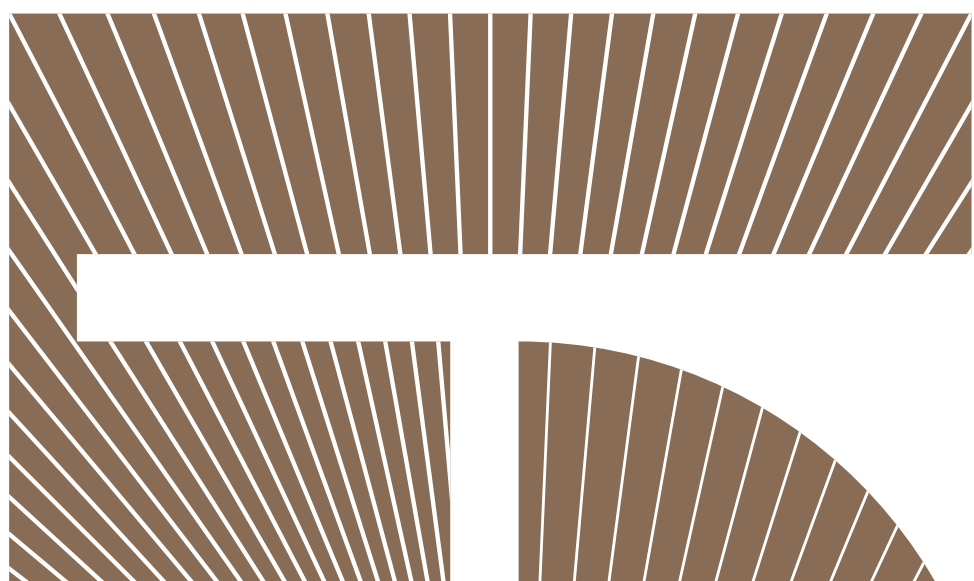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50年史 편찬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사료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소한 역사가
하나 둘씩 모여,
총지종 50년이
만들어집니다.

總
指
指

총지의 역사를
찾습니다

歷
史



마감 일정

2021. 03. 31.



불교총지종